

“부끄러운디... 사진은 봐 줄 만 하요”

■ 잠월미술관 ‘Hello, 산내리 할매’ 전 가보니

“아, 아, 이장인디요. 광주에서 온 손님들 거시기(맞아) 해야스께 논이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작가 할매들’은 싸게 미술관으로 오시요잉.”

14일 오후 5시 합평군 해보면 산내리, 18가구 2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한적한 산골에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곳에 동지를 둔 잠월미술관(관장 김광옥)에서 열리는 ‘Hello, 산내리 할매’(14일~9월10일)전의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박현구, 장복남, 정영순, 정기남, 윤영숙, 김현순, 심효덕씨 등 60~70대 산내리 할머니들이 참여해 디지털 카메라로 마을의 정겨운 풍경을 담은 이색 작품을 선보인다.

이날 오전부터 광주에서는 반가운 손님들이 마을을 찾았다. 이광

제대로 활용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카메라 작동법을 배웠다. 센터 강사들에게 사진을 배워 마을의 다양한 풍경을 프레임에 담았다.

도시민 고민 상담도

정영순(74) 할머니는 “자식들과 놀러가면 맨날 찍혀만 봤어 한 번도 찍어보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사진을 찍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즐거워했다.

이번 전시에서 할머니들은 사진만 찍은 게 아니다. 도시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든든한 해결사 역할도 맡았다. 함께 열린 프로젝트 그룹 ‘간이스튜디오 K’가 주관한 ‘아 하면 어 하는 산내리 서랍전’에도 할머니들의 숨결이 묻어있다. 이 전시는 도시민들이 고민을 적



산내리의 사진작가 김현순·윤영숙 할머니



박현구 작 ‘꽃’

60~70대 할머니들 “나도 사진작가”

디카로 정겨운 마을 풍경 담아 전시

연(51) 이장이 가장 젊은 사람 측에 걸 정도로 마을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엄마 손을 잡고 마을을 찾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미술관 앞마당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양파, 고추, 부추를 꾸집하게 넣고, 고소한 부침개를 부쳐 50여 명의 외지 관람객들을 대접했다.

9월 10일까지 전시

평생 처음 전시회를 여는 할머니들이 미술관에 도착하자 관람객들의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부끄러운디...” 수줍은 새색시 마냥 작품 앞에 선 할머니들. “요것은 30년 넘은 우리집 바람막(바람막) 사진인데, 볼 것은 없지라우?” “누가 몰 한 번 안 쥐도 이라고(이렇게) 꽃은 잘 자라요. 그래도 꽃 사진은 봐 줄만 하요.”

할머니들은 지난 6월 광주시청 자미디어센터에서 주관한 ‘디카,

은 염서를 보내면, 할머니들이 삶은 무개가 느껴지는 답변을 담아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서울 노총각의 하소연에는 “장가 가라. 밤이 짧은 것이어”라는 명쾌한 답변을 남겼고, “건강증이 심하다”는 한 아주머니의 고민에는 “끝 잊어버리고 그러는 사람 있어, 자꾸 대화를 허봐야제~”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도시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할머니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남겼다.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는 전자바이올린 연주, 국악공연을 펼쳤고, 비보이 팀은 할머니들과 흥겨운 어깨춤을 했다.

김광옥 관장은 “할머니들이 산골 마을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며 “도시와 농촌이 서로 ‘소통’하고,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이 ‘관계’를 맺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70-8872-671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이리아’ 전자바이올린 연주 모습



장복남 작 ‘샘’

‘좋은 아빠되기’ 책에서 배우자

자녀 키우는 법 조언

책 잇따라 출간 화제

“친구 같은 아빠”가 각광받는 요즘 아버지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 키우는 법을 조언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아빠, 그것도 몰라?’(민음인 펴냄)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의 사회부장이자 7살, 3살 난 아들과 딸을 둔 웬델 제이미슨이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과 이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아이들의 질문은 신선하다 못해 기상천외하다. “까마귀가 우리 눈을 후벼 팔 수 있어?” “칼에 찔리면 어떤 기분이야?” “자동차에 치이는 게 더 아파, 아니면 해파리에게 물리는 게 더 아파?”... 저자는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소방서장,



의사, 남극기지 대원, 마술사, 영화감독, 우주인 등 전문가를 총동원해 조언을 구한다.

‘아빠 딸이라 행복해요’(포이에마 펴냄)는 딸 부자집 아빠가 쓴 딸 양육 지침서다.

저자는 미국 패트릭 헨리 칼리지 총장이자 홈스쿨협회 회장인 마이클 패리스, 자그마치 여섯 딸과 네 아들을 둔 저자는 30년 전 첫딸이 태어난 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회상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딸의 이성교제, 외모, 사회참

여, 결혼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간섭’이 아니라 ‘지혜로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조언한다.

KBS 이충현 의학전문기자가 뇌과학에 근거해 아빠가 아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아들은 아빠가 키워라’(글담출판사 펴냄)도 나왔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둔 저자는 엄마는 아들을 절대 성장시킬 수 없으며 아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다 주장한다. 아빠와 엄마가 줄 수 있는 자극은 다르며 아들의 성장에 중요한 ‘약간의 공격성, 근육질의 강인함,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 등은 아버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필뉴스

칠월칠석 맞아 18일 푸른길서 ‘예술 난장’

우리문화예술진흥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월칠석을 맞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 난장’을 펼친다. 18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산수동 푸른길공원(옛 산수동 굴다리터).

(사)우리문화예술진흥원(대표 김태훈)이 지난 6월 단오맞이 문화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여는 이번 문화장터는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푸른꿈 사진, 조선대 박물관 등이 공동주관했다.

행사명 ‘통통 데이’(Tong & 통 Day)는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자는 의미로 붙여졌으며 각종 전통문화 관련 공연과 함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하모니모 아트



지난 단오절 문화행사 풍물굿 공연 모습.

슬레’ 수강생들의 사진, 시화작품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풍물재수굿, 택견시연, 시렁설장고, 난타, 한국무용, 개피리상모놀이, 풍물판굿, 진도북놀이 등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우리문화예술진흥원은 아카

슬레(초등학생·중학생), 시화슬레, 디카슬레, 미디어슬레, 우리소리악슬레, 우리소리슬레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10년 하모니모 아트 슬레’를 진행중이며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62-523-04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앙드레 김 My Fantasy’ 재출간

지난 12일 별세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패션 세계와 인생관 등이 담긴 ‘앙드레 김 My Fantasy’(아침나라 펴냄)가 재출간된다.

2002년 8월에 출간된 이 책은 앙드레 김과 동아일보 이승재 기자가 공동 저자로, 앙드레 김의 패션 세계와 꿈, 인생관, 자존심, 아들 키우기, 결혼관, 여성관, 애국심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앙드레 김은 이 책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옷 입는 법, 말하는 법, 테이블 매너, 마음가짐 등 품위있는 여성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제안했으며 아들 이야기와 사진도 공개했다.

아침나라 황근식 대표는 “책 출간 문제로 생전에 2~3번 만나뵈었는데 책 표지 등을 일일이 꼼꼼하게 신경을 썼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고인을 떠올렸다. /연필뉴스



MUSICAL

Rock the Rapper

책머리리퍼

8월 17일(일) 오후 8시 리퍼박스 모뎀

10월 16일 - 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1월 13일 - 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2월 12일 - 1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월 16일 - 1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월 13일 - 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3월 13일 - 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4월 10일 - 1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5월 8일 - 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6월 5일 - 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7월 3일 - 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8월 1일 - 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9월 5일 - 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0월 3일 - 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1월 1일 - 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2월 31일 - 1월 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